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원칙과 맥락』

(이상민 역, 진리탐구, 2008)

남 경 호*

올해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국가기록관리기관의 규모가 확대되고 위상도 격상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기록관의 설치, 인적 측면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채용 등 전례 없는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쾌거를 이루었다. 시스템 영역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현용단계-준현용단계-비현용단계 전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 체제를 이뤄냈다. 정부수립 후 국가경영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었던 공공부문의 기록관리가 최근 10년간 이룬 성과는 마치 대한민국이 6,70년대 이후 수출주도 산업을 기반으로 이뤄낸 압축성장의 표본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중앙집권 주도의 강력한 기록관리 체제 변화는 일련

* 국가보훈처 기록연구소

의 성과와 더불어 커다란 문제점도 유발하였다. 기록관리법에 의한 강제적인 기록관리체제 구축은 외형적 변화만 유도하였을 뿐, 정작 실제 기록물을 생산·관리·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등의 내면적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처리과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을 생산하는지 모르는 채 기존의 관행대로 개인편의 위주의 기록 생산·정리·보관이 여전하다. 기록관에서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기록관리 업무 자체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다수의 기관이 산더미처럼 쌓이거나 뿔뿔이 흩어져버린 자신들의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전문관리기관에서는 기록관리 전반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당장의 성과가 나오는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상호보완적인 통합기록관리 체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각자 당면 현안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낮은 차원의 기록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IT전문가도 아니고, 최고책임자도 아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다. 공공부문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구직, 행정직, 별정직 등 다양한 직렬로 존재하지만, 직렬의 성격을 떠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기록관리 전문지식을 요구하므로 마땅히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불리어야 한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자신들이 담당하고 업무가 전문적이라는 사실을 기관 내에서 증명해야 하며, 해

당 기관에 적합한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적용하여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기록관리 가 자신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현장의 실무경험은 물론이고, 기록관리의 전문적인 이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적극적으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장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기록관리 업무 전문가들과의 실무·학술교류를 통하여 보다 나은 기록관리 체계를 해당 기관에 적용시켜 나가는 팔방미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제기록기구회의(ICA)와 국제기록관리신탁(IRMT)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현장의 실무와 전문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체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교재이다. 총 30권에 달하는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학습교재는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최선의 기록관리 업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기초이론을 소개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실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인프라, 자원, 시스템 등 구체적인 업무지식을 제공해준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원칙과 맥락』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 책은 총 7과로 나뉘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과에서는 기록관리의 이론과 원칙을 소개하였다. 정보와

기록, 공공기록과 사기록 등의 기본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정부, 연구자, 언론인, 족보학자 등 기록의 사용자 유형도 규정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에서 중요시하는 품 준중의 원칙, 기록의 생애주기,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 계층적 기록 정리와 기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2과에서는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 지식관리, 인적·재정·급여관리 등에서의 기록관리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기록관리 체계가 붕괴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적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무분별한 기록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을 경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전략자원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현용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의 통합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3과에서는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보존기록관리, 정보관리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상적인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의 목표와 시행항목을 제시하였다.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단계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4,5,6과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제4과에서는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기존 기록관리 체계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였다. 기록관리 법령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문제, 국가와 조직의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개관하였으며,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략 계획을 ‘발해공화국’이란 가상 국가의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였다.

제5과에서는 기록관리와 보존기록관리의 핵심 업무를 개관하였다. 기록의 전 생애주기 동안 기록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기록관리 업무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였다. 현용기록의 조직과 통제, 기록물을 위한 물리적 보호, 레코즈센터에서의 기록관리, 보존기록 관리 업무에서의 원칙과 실무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6과에서는 통합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업무 단계를 논의하였다. 이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기록 서비스 증진, 기록관리 직원을 위한 훈련과 교육의 증진, 기록관리 전문직의 개발과 확대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록관리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요구대년 공공 서비스 윤리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기록관리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된 윤리 규약 속의 핵심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제7과에서는 이 책의 학습 모듈을 공부한 후에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다른 학습 모듈을 완료하고, 동료와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주제에 관한 다른 저술을 읽고, 전문협회에 가입하고 참가하는 것을 권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기록관리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제적·국가적 전문기록관리기관이나 전문가협회를 소개하였다.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의 다른 기록관리 이론서에 비하면 매우 이해하기 쉽다. 그 중에서 이 책은 입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처음 공부하는 입문자들도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무나 책의 내용이 평이하야 과연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사실 필자도 기록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기록관리 전문이론을 기관 구성원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기록관리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신 기록관리 이론과 방법론을 알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다면 오히려 전문가라는 굴레에 씌어 해당 기관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만다. 특히 기록관에서 근무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혼자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쉽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대면하는 직원들은 기록관리에 문외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록관리에서의 기본이 되는 용어, 이론, 프로세스에 대해서 쉽게 정리된 이 책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각 과에서 있는 연습항목과 학습문제는 독자들에게 기록관리 개념과 실무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록학 입문자는 입문자대로, 현장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이 책을 학습하면서 기록관리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다. 특히

기록관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 해결을 통한 좀더 나은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개별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실무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관련 과제에 대한 토의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하여 국내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전체적인 수준(실무 뿐만 아니라 의식 측면까지 포함하여)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해당 기관에 산적한 반복적이고 단순노동 위주의 기록관리 업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학습과 상호교류를 통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의 30여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이다. 이 책의 학습을 끝낸 후, 현용 기록, 기록물평가시스템, 준현용단계의 기록관리, 기록물 보존, 기록관리 비상계획 등 기록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개괄하는 다른 책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세월이 흐르면 쉽게 균열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듯이, 기록관리에 대한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존의 관행과 편의주의에 동화되기 쉽다. 전세계적으로 채택된 기록관리 전문가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양각색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못한다. 기록관리 전문가로서의 윤리, 학교에서 배운 전문이론, 얼토당토않은 기록관리 현실... 엄청난 괴리감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흔하다. 출발선과 도착지만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

생활지 아무도 모르는 게 국내 기록관리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국가차원의 전자기록관리 체계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기록관리 시대에 그 선두에 나서서 수많은 고난과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기록관리 : 원칙과 맥락』을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